

로스쿨, 어디로 가야하나



김 동 훈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민사법)

지난 한 해 사시준비를 둘러싸고 격렬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핵심에는 2009년부터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있다. 로스쿨 측은 약속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체제로 단일화 되어야하고 그사이만 로스쿨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행 로스쿨의 많은 문제점들은 사시가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형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존속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깊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의 '로스쿨 직진 아닌 유턴해야'(2015.12.17.자)라는 칼럼은 법조계와 법학계의 밖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필자는 그 간 제기된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현행 로스쿨 체제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해결될 수 없는 두 가지를 거론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와의 관계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가장 강력한 모토는 '시험에서 교육으로'였다. 법조인 양성에서 시험비중이 압도적이어서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으니 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내어 실력 있고 균형 잡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부터 변호사시험에 매년 1500명이라는 합격자 정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이것은 누적 응시자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합격률은 제1회의 87%에서 매년 낮아져 올해는 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시험에 붙지 않는 한 3년간의 로스쿨 투자는 전적으로 무위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로스쿨 교육은 다시 시험대비교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대학별 특성화교육 등은 발붙일 여지가 없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작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변시성적의 비공개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는 합격여부는 물론 보다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해졌다. 결국 대부분의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로스쿨생들이 시험에 대비해 학원수강을 하는 것도 일반화될 것이다. 얼마 전 방문한 한 메이저 로스쿨의 호화로운 신축건물의 두 개 층은 검은 코팅으로 가려져있고 책상마다 신문지로 칸막이가 쳐져있었는데 이는 과거 법대의 고시실의 재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입학 정원이 불과 40~50명 정도인 이른바 '미니 로스쿨'의 문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서 정원이 100명을 넘는 곳은 9개에 불과하다. 도입당시 한정된 정원을 나누어먹기 하다 보니 이런 기묘한 다수의 영세로스쿨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부분 사립대학에 속한 미니 로스쿨들은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 이제 그 누적액은 웬만한 사립대학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 미니 로스쿨의 원장은 자신의 로스쿨이 학교당국으로부터 '만성 적자 유발기관'으로 지정되어 매우 엄격한 지출허가를 받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즉 사립대학의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면 이런 미니로스쿨은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재원을 갖다 쓰게 되는 것이니 일종의 민폐기관이 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적은 수강인원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매우 지장을 초래한다. 수강생이 1-2명인 강좌가 속출하고 교수들은 수강생이 없어 자신의 강의가 폐강될까봐 마음을 졸인다. 한마디로 이러한 미니로스쿨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실 이대로는 비전이 없어 로스쿨을 접고 싶어 하는 사학들도 여럿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이들에게 다른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하고 싶다. 즉 로스쿨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다면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는 정원을 가진 소수의 대형로스쿨로 통폐합하고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과거의 법과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법과대학들의 존립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라는 통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사시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펄쩍 뿜 이야기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현행의 로스쿨은 비법학전공자 이른바 '생짜'들을 3년간 교육시켜 자격을 주는 속성양성소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 4년의 법대교육이수예다 최소 3~4년간의 시험준비예다 2년간의 연수를 통해 비로소 자격을 얻는 전통적인 변호사에 비하면 말이다. 속성양성소로서 로스쿨의 의미를 찾는다면 비법학전공자들을 법조계로 영입하여 이들이 가진 다양한 배경지식을 활용해 법조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비법학전공자들이 적지 않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험준비과정을 거치느라 무늬만 타전공자인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제안은 소수의 대형로스쿨들은 비법학전공자들을 속성으로 양성하여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길러내고, 전통적인 송무중심의 법조인은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라는 현행체제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를 말한다. 아무쪼록 현재의 사시존치를 둘러싼 갈등이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고 로스쿨의 역할의 재검토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